



반려동물 방재수첩



대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대피가 필요한 경우는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피소에는 동물을 싫어하거나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동물 등과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예도가와구

1

재난 발생 시 동반 대피가 원칙입니다.

반려동물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도록 리드로 연결하거나 캐리어에 넣어 동반 대피해 주십시오. 재난 시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함부로 풀어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데리러 갈 경우 2차 재난을 당할 수 있으며 거리에 풀어놓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피소에 동반할 수 있는 동물은 반려견, 반려묘, 작은 동물(작은 새 및 소형 설치류 등)입니다.

이 외의 동물은 안전한 지역에 사는 지인 및 친척 등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곳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한 동반 가능한 동물이라도 심하게 짖거나 사람을 물면 대피소를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시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2

평상시의 준비와 사육의 기본

(1) 반려동물 방재용품

재난 시에는 반려동물 용품도 구하기 힘듭니다. 대피소에서는 사람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대비는 보호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평상시에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용품을 최우선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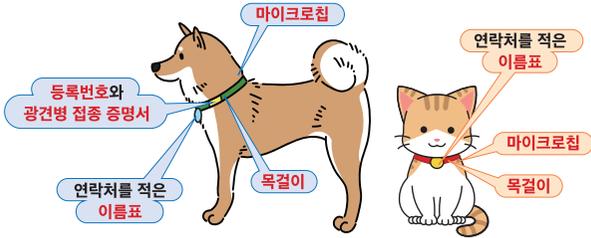
《 체크 리스트 》

- 평상시 먹는 음식, 물 (최소 5일분, 가능하면 7일분 이상)
- 지병이 있는 경우는 내복약 또는 외용약, 버룩, 진드기, 심장사상충 등 각종 예방약
- 캐리어 등 운반구 (캐리어는 대피소에서 반려동물의 집이 됩니다)
- 목걸이 및 리드, 하네스, 이름표 (반려견의 경우, 광견병 접종 증명서 등)
- 화장실 용품 (시트 및 배설물 봉지, 고양이 모래 등)
- 식기(음식용, 물용)
- 건강 기록 및 반려동물 수첩 (마이크로칩 번호 기재, 예방접종 및 병력 기록)
- 반려동물 사진(보호자와 함께 찍은 것)
- 반려동물 애용품(장난감 및 방석 등)

(2) 신원 표시

이름표(반려견의 경우 등록번호 및 접종 증명서)를 달아 둡시다. 또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개체 식별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이미 장착한 경우는 보호자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해 둡시다.

반려견의 경우



반려묘의 경우

(3) 건강관리

대피소에서는 낯선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 예상됩니다. 평상시에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에 힘씁시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을 하면 대피소에서 다른 동물과의 문제도

평상시에 중요한 건강관리의 예

- 벼룩, 진드기, 심장사상충 예방하기
- 각종 예방주사 접종하기
- 반려견은 1년에 1번, 광견병 예방 주사 접종
-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 청결 유지



(4) 재난 대책 “훈련”

【반려견의 경우】

대피소에서는 낯선 환경 및 사람에 둘러싸인 스트레스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함부로 짖는 등 뜻밖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보호자가 제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훈련을 해 둡시다. 또한, 질병 및 고령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반려견의 경우는 카트 및 보조기 등 이동 수단을 생각해 둡시다. 가족 외에도 이동 등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안심입니다.



재난시 훈련 포인트

~ 반려견 편 ~

- “기다려” “앉으려” “이리 와” 등 기본적인 명령에 따르기
- 캐리어를 싫어하지 않고 들어가기 안에서 장시간 지내기
- 함부로 짖지 않기
- 배변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기
- 타인과 다른 동물을 두려워하거나 공격성을 띠지 않기



【반려묘의 경우】

고양이는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밥이나 물을 먹지 않거나 화장실을 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의 훈련 및 “적응”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도 대피소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시 훈련 포인트

~ 반려묘 편 ~

- 목걸이 및 하네스에 적응시키기
- 고양이용 화장실에서 배설하기
- 타인과 다른 동물을 봐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기
- 캐리어에 적응시키기 안에서 장시간 지내기

캐리어에 적응하는 요령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반려동물이 싫어할 때만 캐리어를 이용하면 들어가기로 거부하게 됩니다. 안에서 간식을 먹이거나 숨겨 놓은 장난감을 찾아내게 하는 등 좋아하거나

즐거워 할 일을 하게 하여 캐리어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또한, 평상시에 방에 두고 잠자리용으로 사용하여 안에서 안심하고 지내도록 하는 것도 적응시키는 요령입니다.



대 재난에 직면 했을 때

(1) 대피소 생활

에도가와구는 구립 초·중학교 등을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모든 대피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가 가능합니다.

대피소 내 사육장과 대피자의 생활 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대피자의 주거 공간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육장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 1명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먹이 및 배설물 처리 등은 보호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피소에는 동물을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대피자에게 불안 및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동물을 수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시다.

에도가와구 반려동물 재난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도가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반려동물 재난 대책 페이지
- 에도가와구 지역 방재 계획
- 에도가와구 대피소 개설 및 운영 매뉴얼
- 리플릿 '우리집의 방재'

(2) 보호자 그룹에 대하여

대피소에서는 보호자들의 협력하여 그룹을 만들어 동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재난 시 대피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소통하기는 힘듭니다. 평상시에 지역, 공원, 동물병원 대기실에서 반려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둡시다. 이들은 평상시는 물론, 재난 시에도 반드시 보호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양면 참조)



반려동물 기록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록해 둡시다.

이 표를 잘라 대피소에서 반려동물 캐리어에 붙여두면 반려동물의 표지가 됩니다.

보호자 이름		
반려동물 이름		
종류	개 · 고양이 · ()	
품종		
털색		
생년월일		
성별	수컷 · 암컷	중성화 수술 (완료 · 미완료)
병력		
성격 및 특징		
등록번호(반려견)	년도	제 호
마이크로칩 번호		
사진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부착)	

(3) 보호자 그룹 구축 및 운영의 흐름



먼저 동물을 데려온 대피자(보호자)를 모으도록 합니다.

◎대장을 작성하여 보호자 그룹을 결성한다.

- (1) 대피소에 있는 '대피소 반려동물 등록대장'에 기재한다.
- (2) 대피소의 동물 사육 규칙에 동의하고 보호자 그룹 참가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보호자 그룹에서 책임자를 선출한다.

공동 작업의 진행 관리, 연락 조정 등을 할 책임자를 선출합니다. (책임자는 "위생반"에 소속)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 (1) 구와 연락
정기적으로 사육 동물 및 보호 동물의 숫자 파악과 상황 보고, 부족 물자 보충 요청 등 연락 또한 구에서 동물용 물품 보급 및 동물 구호 자원봉사자 파견, 수의사 회진 일정 등의 정보 발생 시 대피소 내에 전달
- (2) 다음 작업반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작업자 로테이션 작성 등 조정
- (3) 동반 동물로 인한 힘쓴다



◎책임자 외의 보호자는 3개의 작업반으로 나뉩니다.



【 제1반 】

사육장 설치 및 관리

사육장 설치 및 운영, 사육 규칙(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 건물 내에서는 안아서 산책. 사육장에는 반려동물과 가족 1명 동반 가능. 브러싱 장소 등)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사육장의 위생 상태 점검 및 주변 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2반 】

대피 동물 관리 및 보살핌

일정 기간마다 '대피소 반려동물 대장'에 등록된 동물의 숫자를 집계 및 파악한다.
정기적으로 사육장을 순찰하여 문제가 있는 동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보호자가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관리가 힘든 반려동물을 돌봐준다.
다른 대피자와 동반 동물로 인한 충돌 발생 시는 책임자와 함께 해결에 힘쓴다.

【 제3반 】

보호자를 알 수 없는 동물 관리

대피소에서 보호 중인 보호자가 없는 동물이 동물 구호소로 이송될 때까지 돌봐준다.
동물의 상황 및 특징을 '대피소 반려동물 대장'에 기록하여 보호자 찾기에 노력한다.
인수 및 이송 등의 정보도 기재하여 수시로 보호 동물의 숫자를 집계 및 파악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도 재난 시 반려동물이 놀라서 달아나거나 대피 중에 놓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걸이가 벗겨지거나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자택 외의 장소로 대피한 경우에는 연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반려동물을 찾길 바랍니다.

보호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아래 장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① 근처 대피소(임시 보호소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② 혹은 ③으로 이송됩니다)
- ② 재해 시 도립 시노자키 공원 도그런 내에 설치되는 '동물구호소'
- ③ 도쿄도 동물애호 상담센터
- ④ 가까운 동물병원 및 민가, 동물애호단체 등

정보는 구의 보건소에서 관리되므로 동물 관리계에 연락해 주십시오. 실종 정보를 접수하여 각 시설의 정보와 대조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드립니다.

에도가와 보건소 동물 관리계

소재지: 에도가와구 히가시코이와 3-23-3
(고이와 건강지원센터 내 2층)

전화 : 03-3658-3177